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북연구원(T.063-280-7100/F. 286-9206)
<http://www.jthink.kr>

•문의 : 연구기획부장 장남정 연구위원
(063-280-7162)

•담당자 : 산업경제연구부 김시백 연구위원
(063-280-7131/kimbio96@jthink.kr)

보도시점 : 2019년 7월 24일(12시)부터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라북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새만금은 초대형 글로벌데이터센터의 최적지

- 데이터센터 운영으로 연간 500명의 고용 창출 기대
- 지역 브랜드 제고로 산업구조 개편 효과 가능

- 지난 4월 새만금개발청은 KT 등과 「새만금 아시아 데이터센터 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최근 네이버의 제2데이터센터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가운데, 데이터센터의 지역 경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수의 데이터센터를 집적화시키고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클러스터 조성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이슈브리핑 ‘전라북도 글로벌 데이터센터 유치 기대 효과 및 연계 방향’을 통해 전라북도에 글로벌 데이터센터를 유치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데이터센터로부터 발생하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브랜드 제고로 인한 인프라 및 연관 산업 투자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 데이터센터는 4차 산업 혁명의 필수 기반 시설임과 동시에 전력 장비 산업의 수요 시장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세계적으로 연평균 3% 이상 급성장하고 있고, 미국과 북유럽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해 고용 창출 효과와 중장기적인 부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북연구원은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이 지금까지 중소 규모로 수도권에 64%가 밀집한 상황이지만, 새만금이 초대형 규모의 글로벌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으로 3GW급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글로벌 데이터센터 기업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끌어들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또한, 데이터센터의 추가 확장이 용이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 국가간 해저 광케이블 연결망 구축이 가능하여 초대형 글로벌 데이터센터 구축이 용이하다.
- 글로벌 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해 건설 단계에서 1,400~11,000명, 운영 단계에서 230~1,900명의 고용이 전라북도에서 창출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 만약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하여 운영될 경우에는 240억의 GRDP와 504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 전북연구원은 미국 버지니아 주와 네덜란드 Agriport A7의 경우, 글로벌 데이터센터의 유치로 지역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추가적인 데이터센터와 IT 분야의 기업 유치 등 산업 구조 개편 효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데이터센터 유치 효과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한다고 주장하였다.
 - 버지니아 주는 데이터센터가 2014년 기준으로 537개가 밀집해 있고 전체 고용의 44.4%가 데이터센터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IT 분야 인력이다.
- 전북연구원은 데이터센터 유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① 자율적인 전력 거래와 데이터센터 관련 건축법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데이터센터 특구를 조성하고 ② 물리적 전력직거래를 위한 전력망을 구축하며 ③ 금융, 스마트팜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공공 데이터센터를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